집, 인권 그리고 강제퇴거
-캄보디아 강제퇴거의 현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세계 인권 선언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서 평등하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이기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종·국적·성별·종교·정치적 견해·신분이나 지위 등 그 어떤 것에도 관계되거나 차별됨 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서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유, 안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UDHR, Universal Declartion of Human Rights)' 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된 인권선언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지닌 본래의 가치에 핵심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 명시된 가치들은 앰네스티가 펼치는 모든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주춧돌입니다.

그러나 세계 인권 선언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권을 거부당한 채 살아갑니다. 사람이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는 물·음식·집·건강·교육 등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며, 이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사회는 이들을 배제하고 무시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의 삶은 불안해지고 더욱 극심한 빈곤에 빠져듭니다.

지붕만 있다고 집인가요?

"주거권은 단지 머리 위에 지붕을 얹은 시설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집은 단순히 네 개의 벽과 하나의 지붕만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집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의 토대입니다. 집은 의식주를 포함한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안전, 깨끗한 환경(취사·위생·배수시설 등)–을 제공하고, 열악한 환경과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럼 적절한 주거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 환경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주거의 중요성에도, 전 세계 10억 명의 사람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 안전하지 못한 식수, 부족한 전기와 수도시설, 인구과밀, 빈번한 폭력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 100만 명 이상은 집이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주거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는 시냇가에서 떠온 더러운 물을 마셔요. 아이들은 자주 구토를 하거나 설사병에 걸리죠. 정부는 우리가 주유소에서 물을 떠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냥 집시들은 집에 가라는 말밖에는.."

- 슬로베니아에 사는 로마족(소수민족)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배설물을 접촉하거나 쥐, 벌레, 기생충이 들끓는 곳에 살기 때문에 식수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콜레라, 설사병, 간염, 장티푸스와 같이 식수에 의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곳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욱 심하게 존엄성을 침해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화장실이 없어서 우리는 탁 트인 장소를 화장실로 사용하거나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항상 성폭행의 위험에 시달리죠."

- 케냐 나이로비에 사는 여성

부적절한 주거는 여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화장실이 없는 곳에 사는 여성들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밤에 먼 거리를 걸어가기 때문에 성폭력과 성추행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안전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해방되는 데 필수조건입니다.

"14살 때 제가 살던 집이 철거되면서 아빠는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등록금을 낼 수 없었거든요. 저는 집만 잃은 게 아니에요. 공부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 짐바브웨에 사는 19살 소녀

아동, 노인과 장애인들은 부적절한 주거환경에 더욱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적절한 주거공간에서 살아가는 많은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부모가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집이 인권인 이유?

부적절한 주거는 사람들이 사는 집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권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받은 사람들은 노동, 건강, 안전, 교육, 의견개진 등 광범위한 인권을 침해받게 됩니다.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권리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다른 권리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투표할 권리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권리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권리
주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권리
노동에 대한 권리
음식에 대한 권리

강제퇴거란 거주자의 의지에 반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와 안전장치 없이 거주하는 집 혹은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퇴거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강제퇴거는 병원, 올림픽 경기장과 같은 공공시설을 세우는 대규모 개발이나 건설 사업, 부동산 투기, 빈민가 철거, 도시 미화 등 매우 다양한 이유로 일어납니다.

강제퇴거는 부적절한 주거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퇴거당한 사람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생계를 이어가던 땅에서 쫓겨나 부적절한 주거 환경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시 미화"와 "빈민가 철거" 의 명목으로 정부에 의해 또다시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번 쫓겨난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강제 퇴거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다. 부유층은 사실상 강제퇴거도, 대규모 퇴거도 절대 당하지 않는다."

– 유엔 해비타트

강제퇴거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강제퇴거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퇴거란 집뿐 아니라 일자리를 잃는 것이고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집을 잃는다는 것은 삶을 송두리째 잃는 것과 같아 가난한 사람들은 전보다 더 가난하게 됩니다.

강제퇴거 시 주민들은 왜 쫓겨나는 지, 언제 쫓겨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에 대해 알 권리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마저 침해받습니다. 종종 퇴거에 반대하며 항의하는 사람들은 경찰에 폭행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강제퇴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퇴거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이 집이나 땅으로부터 자의적 또는 강제적으로 퇴거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퇴거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능한 한 퇴거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CAMBO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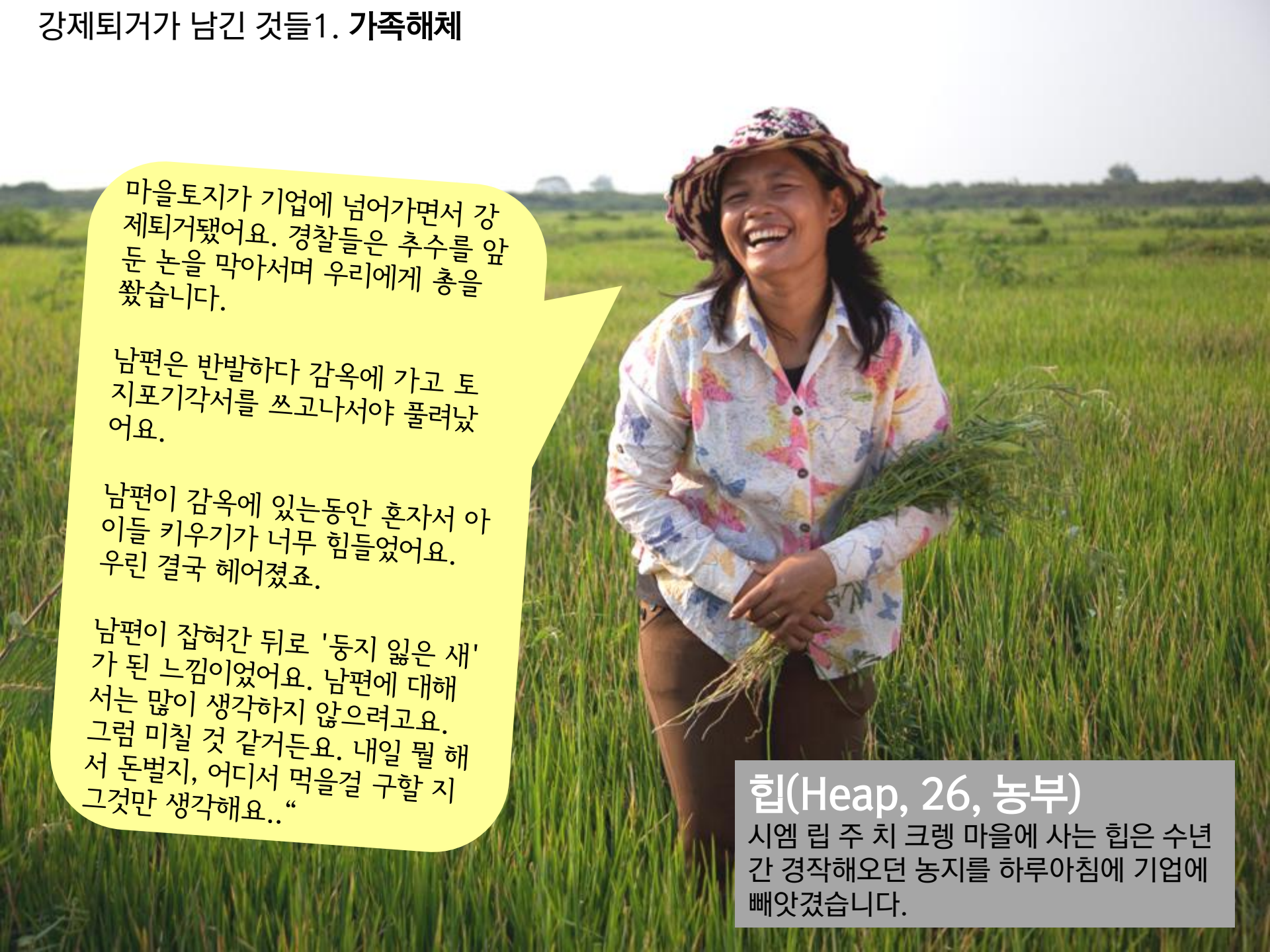
강제퇴거: 캄보디아 경제개발의 빛과 그림자

인구의 85%가 농촌에 살며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캄보디아에서는 현재 농촌과 도시를 불문하고 개발사업이 한창입니다. 경제를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 빈곤을 퇴치하려는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강제퇴거'가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국토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약 42만 명이 강제퇴거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빈곤퇴치라는 목적을 위해 기업에 대한 토지임대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주민들은 개발의 수혜를 받기도 전에 지역에서 내쫓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주장했던 정부의 결정은 결국 주민들을 더 깊은 빈곤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강제퇴거가 남긴 것들1. **가족해체**



마을토지가 기업에 넘어가면서 강제퇴거됐어요. 경찰들은 추수를 앞둔 논을 막아서며 우리에게 총을 쐈습니다.

남편은 반발하다 감옥에 가고 토지포기각서를 쓰고나서야 풀려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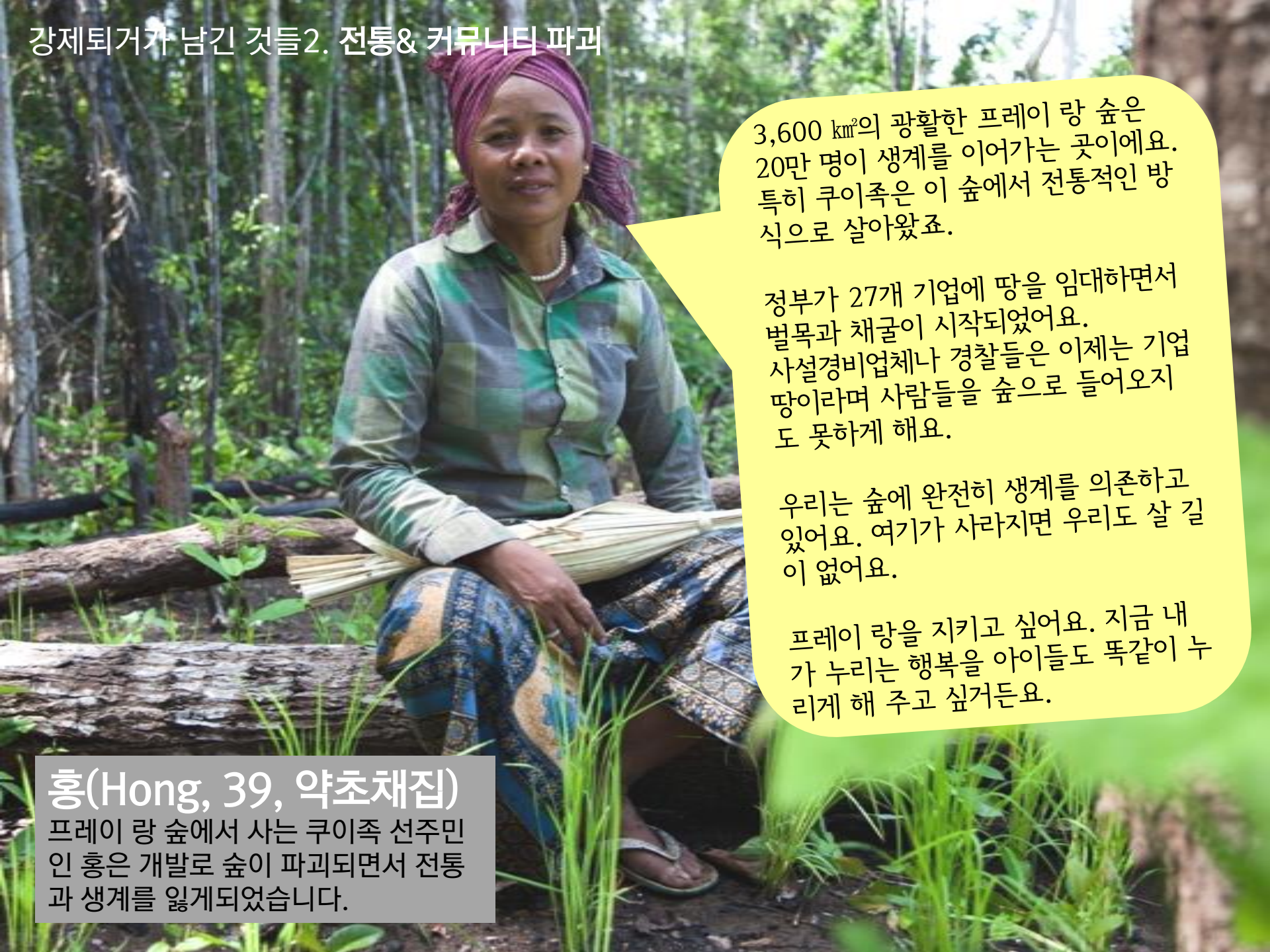
남편이 감옥에 있는동안 혼자서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린 결국 헤어졌죠.

남편이 잡혀간 뒤로 '둥지 잃은 새'가 된 느낌이었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그럼 미칠 것 같거든요. 내일 뭘 해서 돈벌지, 어디서 먹을걸 구할 지 그것만 생각해요..“

힙(Heap, 26, 농부)

시엠 립 주 치 크렝 마을에 사는 힙은 수년간 경작해오던 농지를 하루아침에 기업에 빼앗겼습니다.

강제퇴거가 남긴 것들2. 전통& 커뮤니티 파괴



3,600 ㎢의 광활한 프레이 랑 숲은 20만 명이 생계를 이어가는 곳이에요. 특히 쿠이족은 이 숲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왔죠.

정부가 27개 기업에 땅을 임대하면서 벌목과 채굴이 시작되었어요. 사설경비업체나 경찰들은 이제는 기업 땅이라며 사람들을 숲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우리는 숲에 완전히 생계를 의존하고 있어요. 여기가 사라지면 우리도 살 길이 없어요.

프레이 랑을 지키고 싶어요.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을 아이들도 똑같이 누리게 해 주고 싶거든요.

홍(Hong, 39, 약초채집)

프레이 랑 숲에서 사는 쿠이족 선주민인 홍은 개발로 숲이 파괴되면서 전통과 생계를 잃게되었습니다.

강제퇴거가 남긴 것들3. **신체적 정신적 고통**

강제퇴거로 모든 것을 잃자 안되겠다 싶어 250km를 걸어 총리를 만나러 갔어요.

프놈펜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못만나고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같이 간 사람들과 남편마저 절 두고 도망갔어요. 저는 당시 임신 5개월이라 도망치지 못하고 8개월을 감옥에서 보냈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감옥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프고 출혈도 심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돌봐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요. 그 아이가 이 아이에요. 태어난 것 만으로도 기적이라는 생각에 이름을 '삼랑(행운)'이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지금, 힘드네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마이(Mai, 49, 주부)

2008년 4월 캄보디아 북부 보스마을에 사는 마이는 지역에 설탕공장이 들어서면서 보상도 못받고 쫓겨났습니다.

강제퇴거가 남긴 것들4. **재산 및 생계 박탈**

어느날 우리 동네가 신정부청사와 호텔등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부는 턱없이 작은 돈을 제시하며 이것을 받고 나가든, 그냥 나가든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싸웠어요.그러나 2009년 1월 새벽 2시, 철거반이 들이닥치며 모든게 끝났죠.

당시 철거반원들에게 짐이라도 챙길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건진거라곤 재봉틀뿐 이었죠.

모든걸 잃고 살던곳에서 40km 떨어진 열악한 재정착지로 강제이주 되었어요. 지금은 직장도 없어 돈도 못 벌어요.

아이가 아파 빚까지 낸 터라 이젠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네요.

소팔(Sophal, 32,네일아티스트)

프놈펜 데이 끄라홈에 살던 소팔은 지역이 신청사부지로 결정되면서 2009년 강제퇴거 되었습니다.

강제퇴거가 남긴 것들5. 무시와 소외

프놈펜에 위치한 벙깍호수는 4,000가구 이상이 살고있는 삶의 터전이었어요.

이곳에 관광센터가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계획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와 보상을 협의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쫓겨날 신세였죠.

많은 주민들이 떠났고, 남은 주민들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법원에 호소도 해봤지만 소용 없었죠. 저는 지역주민 대표가 되어 시위를 이끌었고, 결국 벙깍호수에 거주지를 보장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같은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지역활동을 조직하려구요. 정부가 자신의 결정을 바꾸고, 우리와 같은 피해자, 즉 무고한 사람들 위해 책임을 다하도록 할겁니다.

바니(Vanny, 32,자영업)

바니는 프놈펜 벙깍호수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마을이 강제퇴거 대상이 되자 적극적으로 퇴거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도 캄보디아가 발전하길 바래요. 하지만 **나에게 발전이란 정의(Justice)**입니다.
우리에게 총을 쏜 사람들 처럼, 죄 지은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무고한 사람들이 풀려나는 거죠.

정부가 제발 눈 똑바로 뜨고 가난한 사람들을 봤으면 합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돈만 돌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으면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

– 치 크렝 마을의 힙

어디서나 볼수 있는 보통의 동네 아주머니, 우리 어머니가 삶을 무너뜨리는 퇴거에 맞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이들도 지금은 엄마가 밖에 나가 싸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저 미안할 뿐이죠."
- 바니-

지금 그들의 투쟁을 지지해주세요.
불도저가 집을 무너뜨릴수 있지만, 우리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인권단체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국적·인종·신앙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300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